

조선시대 殿庭軒架와 登歌

임 미 선

(서울대 강사)

〈目 次〉	
I. 머리말	1. 세종
II. 殿庭軒架의 악현과 용례	2. 성종-정조
1. 세종	3. 순조
2. 성종	4. 현종-대한제국
(1) 초기	(1) 현종-고종
(2) 후기	(2) 대한제국
3. 인조-정조	IV. 內吹의 편성과 용도
4. 순조-고종	V. 맺음말
III. 登歌의 악현과 용례	참고문헌

I. 머리말

殿庭軒架와 登歌¹⁾는 조선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거행된 會禮宴, 正至 및 誕日의 朝賀 그리고 進宴, 進饌, 進爵 등의 궁중 禮宴에서 奏樂을 위해 進設되는 악대를 가리킨다.

조선 전기 전정현가와 등가의 악기편성, 악현 등에 대한 사항은 『세종실록』 권132 「五禮·嘉禮序例」 및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조선 후기의 경우는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등의 禮書와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궤』 등의 연향관련 의궤²⁾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1) 예언에서 주악을 맡는 악대로서 殿庭에 진설되는 것을 殿庭軒架라고 殿階 위에 진설되는 것을 登歌 또는 殿上樂이라 하는데, 본고에서는 전정현가, 등가로 각각 명명함.
- 2)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연향관련 의궤로는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궤』, 『수작의궤』에 총 16종이 있다. 이외에도 진찬례를 행한 기록이 『원행음묘정리의궤』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해경궁진찬의궤』가 전한다. 이들 의궤가 간행된 시기는 모두 조선 후기에 해당하

『국조오례의』나 『춘관통고』 등의 禮書는 궁중 예연의 규범을 기록한 것이고 의례는 그때그때 設行된 진연, 진찬, 진작 등의 연회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예서를 통해서만은 당시 규범적으로 시행한 예연의 일반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반면, 의례를 통해서만은 당시 연회를 실행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 시행된 개별화된 각 연회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禮書와 儀軌를 중심으로 전정현가와 등가의 악기편성 및 악현의 변천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조선 전기 전정현가와 등가의 형태는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악학궤범』을 전거로 살펴 보고 후기 부분은 『춘관통고』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진연의례』, 『진작의례』, 『진찬의례』 등의 연향 관련 의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II. 殿庭軒架의 악현과 용례

조선시대의 殿庭軒架의 악현은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춘관통고』 등의 문헌에 의하면 세종, 성종, 숙종, 인조, 순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정현가의 용례는 예연의 성격과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 세 종

세종조 전정현가의 악현 및 악기편성의 변천과 용례 등은 『세종실록』 권132 「五禮·嘉禮序例」와 『세종실록』 6년, 16년 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종실록』 권132 「五禮·嘉禮序例」의 배반도³⁾에 수록된 〈會禮宴圖〉에는 전정현가와 등가의 악현이

는데, 16종 의례의 연회 실행 동기는 왕의 오순, 기로소 입사, 존호기념과 대왕대비의 주갑, 칠순, 팔순 등을 경하하기 위한 것이고 『원행음묘정리의례』와 『혜경궁진찬의례』는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회갑을 경하하기 위한 것이다. 각 의례마다 연회의 실행 동기가 다르고, 연회 거행의 년도가 서로 다른 차이점은 연회가 거행된 시기와 장소, 일정, 격식 또는 잔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전정현가와 등가의 악현 및 악기편성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체제를 갖춘 의례의 기록 방식은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반차도를 비롯한 의주, 공령 등의 항목은 조선 후기 궁중 연향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排班圖는 예연이 거행되는 정전에 참석하는 왕족과 백관의 정한 위치와 주악과 일무의 소임을 맡은 악공의 배열 등을 문자로 圖解한 것으로 『세종실록』 권132의 〈오례·가례서례〉,

보이고 <世宗朝 會禮宴 軒架 登歌>에는 회례에 진설되는 헌가와 등가의 악공의 배열이 도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헌가의 악기편성은 응고, 삭고, 편종, 편경, 축, 어, 생, 가(歌), 금, 슬, 혼, 지, 관, 약부, 봉소 등의 아악기만으로 구성된다.⁴⁾ 회례의 아악을 연주하는 헌가는 朝禮의 헌가이다 금6, 슬4, 가(歌)10을 추가한 것과 같다.⁵⁾

<도 1> 『세종실록』 <世宗朝 會禮宴 軒架>



이와 같이 아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세종실록』 회례연의 전정헌가가 어느 시기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⁶⁾ 그런데 다음의 <사료 1>의 전정헌가의

『국조오례의』, 『춘관통고』 등의 예서와 대부분의 의례에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32 <오례·가례서례> 正至會百官之圖, 會禮宴圖, 正至及誕日勤政殿朝賀之圖 및 『국조오례의』, 『춘관통고』 勤政殿正至誕日朝賀之圖, 勤政殿正至會百官朝賀之圖, 續儀仁政殿正至誕日朝賀之圖 등이 있고 규장각 소장 16종의 연향 관련 의례 중 『(기해)진연의례』(숙종 45, 1719), 『(갑자)진연의례』(영조 20, 1744) 및 『수작의례』(영조 41, 1765)를 제외한 그 외의 의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4) 『세종실록』 권132, 「오례·가례서례」(악현), 17b-18a, <會禮 軒架> 참조.
 5) 『세종실록』, 「오례·가례서례」, 16b, <朝禮 軒架> 참조.
 6) 이혜구 박사도 세종 15년에 처음으로 회례연에 쓰인 아악이 늦어도 성종 때에는 폐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을 뿐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역 아악계법』 1권 140쪽, <성종조의 하례 및 연향악>의 각주 참조.

악기편성은 <도 1>과 다른 점에서 주목된다.

<사료 1>은 세종 16년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을 설명한 『세종실록』의 기록이고 <표 1>은 <사료 1>에 기록된 악기편성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료 1> (세종 16년 7월 기사)

慣習都監啓 御前禮宴 鄉樂在東 第一行瑟琴 唐琵琶 玄琴 鄉琵琶 伽倻琴 各一 第二行同 第三行大箏四 鄉箏箏一 第四行杖鼓四 右鄉樂內在前唐琵琶一瑟琴一今各加一 唐樂在西 第一行唐琵琶六 方響二 第二行大箏二 牙箏二 第三行箏箏六 笙和各一 第四行龍管二 唐笛四 洞簫二 第五行杖鼓八 第六行教坊鼓一 右唐樂內在前牙箏大箏各一 今各加一 命下禮曹(『세종실록』 권65, 8b2-7)

<표 1> 西(당악) 東(향악)⁷⁾

방 방 당 당 당 당 당 당	가 향 현 당 당 해 해
향 향 비 비 비 비 비 비	야 비 금 비 비 금 금
파 파 파 파 파 파	금 파 파 파
아 아 아 대 대 대	가 향 해 당 해
쟁 쟁 쟁 쟁 쟁 쟁	야 비 금 비 금
	금 파 파
화 생 피 피 피 피 피 피	향 대 대 대 대
리 리 리 리 리 리	피 금 금 금 금
	리
통 통 당 당 용 용	장 장 장 장
소 소 적 적 관 관	고 고 고 고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교방고	

(고딕체는 속각가를 나타낸 것)

7) <표 1>에서 나타낸 악기의 배열은 장사훈 박사가 『증보 한국음악사』 309쪽에 제시한 것과 다르다. 장사훈 박사는 ‘右鄉樂內在前唐琵琶一瑟琴一今各加一’, ‘右唐樂內在前牙箏大箏各一今各加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표 1>에서는 이것을 고딕체로써 나타내었다. 장사훈, 『증보 한국음악사』 309쪽 참조.

위의 기록은 세종 16년 무렵 어전 예연에 쓰인 전정헌가는 세종 15년 회례에 아악을 연주한 아악기 중심의 헌가가 향당교주⁸⁾의 형태 즉, 해금, 당비파, 향비파, 현금, 향비파, 가야금, 대금, 향필률, 장고, 당비파, 방향, 대쟁, 아쟁, 필률, 생, 용관, 당적, 통소, 교방고의 향악기와 당악기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세종 15년에 아악으로 개정된 회례악이 16년에 폐용되고 당악과 향악이 쓰이게 되면서 그에 따라 헌가의 악기편성이 향당교주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5작 이하에서 당악과 향악을 교주하던 세종 15년의 회례연에서 그 주악을 담당하던 악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악기편성은 『악학궤범』의 〈시용 전정헌가〉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건고, 응고, 삭고, 축, 어, 생, 우, 화 같은 아악기와 교방고를 사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 악기의 배열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도 3〉 『악학궤범』 〈시용 전정헌가〉 참조).

2. 성 종

(1) 초 기

성종조의 전정헌가는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에 전하는데, 두 문헌에 기록된 악헌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악학궤범』보다 앞서 성종 5년에 완성된 『국조오례의』 소재 〈전정헌가도설〉의 해당 시기를 성종 초기로 상정하고자 한다.

『국조오례의』는 연대기에서 구체적으로 世祖代에 정리가 된 부분과 成宗代에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世宗朝의 「오례」가 왕권의 우세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라면 비교적 신권이 강세로 전이된 成宗朝의 정세를 『국조오례의』는 반영하여 편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⁹⁾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전정헌가는 『악학궤범』 〈시용 전정헌가〉보다 앞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조오례의』 서례 〈殿庭軒架圖說〉에 의하면 성종 초기 전정헌가의 악기편성은 당적, 비파, 장고, 교방고, 월금, 방향, 태평소, 피리, 해금 등의 당악기와 대금, 중금, 소

8) 여기서 향당교주는 향악기(右方)와 당악기(左方) 중심의 악기편성을 의미함. 이혜구 박사의 「經國大典 樂工 取才項目 中の 唐樂과 鄉樂」에서 향악기, 당악기 중심의 전정헌가를 鄉唐交奏로 명명한 용례를 따른 것임. 이혜구, 「經國大典 樂工 取才項目 中の 唐樂과 鄉樂」, 『한국음악연구』 제21집(한국국악학회,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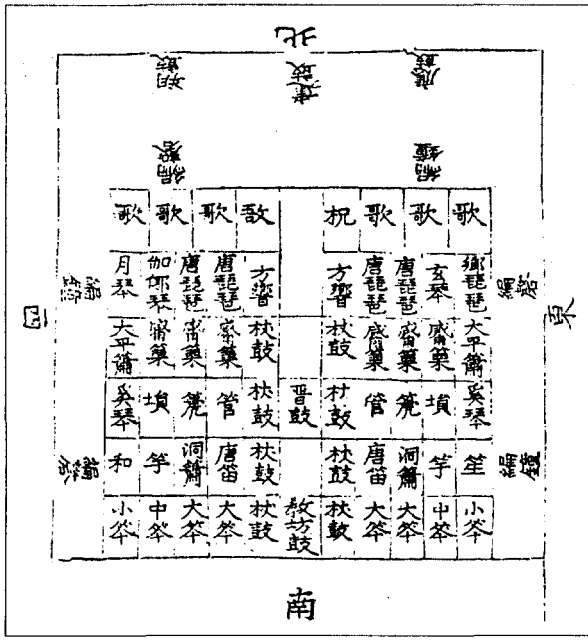
9)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서울: 일조각, 1991), 391-392쪽.

금, 퉁소, 현금, 가야금 등의 향악기와 함께 건고, 응고, 삭고, 진고, 축, 어, 생, 우, 화, 편종, 편경, 훈, 지, 관 등의 아악기로 이루어진다.¹⁰⁾ 이와 같은 악기편성은 『세종실록』 16년의 악기편성에서 대쟁, 아쟁, 용관이 빠지고 건고, 응고, 삭고, 진고, 편종, 편경, 축, 어, 훈, 지, 관, 우와 같은 아악기가 추가된 것이다. 이 무렵 피리는 향피리, 당피리로 구분되어 쓰이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세종조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된다.

성종 초기 새로 추가된 악기 중 진고는 『국조오례의』 서례 <전정헌가도설>에서만 사용되는 악기이고, 월금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평소는 『국조오례의』 서례에서 처음으로 전정헌가에 쓰이게 되는데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다시 잠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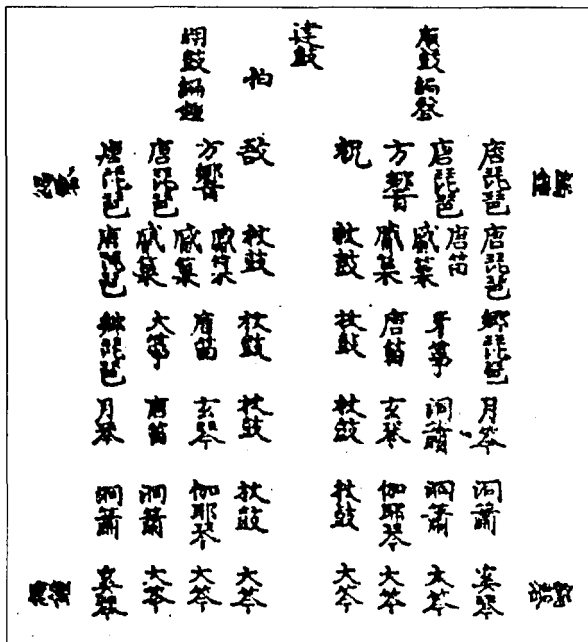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성종 초기 전정헌가의 악기편성이 보이는 변화는 세종 16년 무렵의 전정헌가의 악기편성이 『국조오례의』 서례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는 변화과정을 거친 후 『악학궤범』 <時用 殿庭軒架>의 형태로 되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세종실록』의 서로 다른 악기편성에 대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도 2> 『국조오례의』 序例 <殿庭軒架圖說>



10) 『국조오례의』 서례, 권2, 38b-39a.

<도 3> 『악학궤범』 <時用 殿庭軒架>



(2) 후 기

『악학궤범』의 <時用 殿庭軒架>는 건고1, 삭고1, 응고1, 편종3, 편경3, 축1, 어1, 방향2, 당적4, 향비파2, 당비파6, 월금2, 통소5, 피리5, 대금6, 해금2, 장고8, 현금2, 가야금2, 아쟁1, 대쟁1, 박1로 구성된다.

이러한 악기편성은 『국조오례의』 서례 악기편성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악학궤범』의 <時用 殿庭軒架>는 『국조오례의』 서례 악기편성에서 훈, 지, 생, 우, 화 같은 아악기의 요소가 빠지게 되면서 향당교주 형태에 가까워진다.¹¹⁾ 악기의 사용에서 『악학궤범』의 <時用 殿庭軒架>는 『국조오례의』 전정헌가에 사용되던 중금, 소금이¹²⁾ 쓰이지 않고 교방고가 없어지는 한편, 아쟁과 대쟁의 현악기가 추가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³⁾ 중금과 소금은 『국조오례의』 이후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대금 한 가지만 쓰이

11) 성종조의 전정헌가는 당시 전정고취의 악기편성에 편종, 편경, 축, 어, 박 등의 악기를 추가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12) 『국조오례의』에는 등가의 악현이 전하지 않으므로 당시 등가에도 중금, 소금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13) 이혜구, 『국역 악학궤범』 1권 99쪽의 각주 참조.

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조선 전기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 전기 전정현가의 악기편성

시기	세 종		성종 초기	성종 후기
관련 문헌	『세종실록』 권132 오례 가례서례	『세종실록』 권65 16년 기사	『국조오례의』 서례	『악학궤범』 시용 전정현가
아 악 기	진고3 삭고3 응고3 편종9 편경9 축1 어1 (축1 어1) 금5 슬5 봉소10 자10 훈 생7 우10 화3	생1 화1 용관2	진고1 삭고1 응고1 진고1 편종3 편경3 축1 어1 생1 우2 화1 훈2 지2 관2	진고1 삭고1 응고1 편종3 편경3 축1 어1
당 악 기		방향2 당적4 당비 파8 당피리6 해금2 장고12 대쟁2 아쟁 2 교방고1	방향2 당적2 당비 파4 피리5 해금2 장고4 교방고1 월 금1 태평소2	방향2 당적4 당비 파6 피리5 해금2 장고8 아쟁1 대쟁1 박1 월금2
향 악 기		향비파2 통소2 향 피리1 대금4 가야 금2 현금2 용관2	향비파1 대금4 중 금2 소금2 가야금1 현금1	향비파2 통소5 대 금6 가야금2 현금2
기타			歌6	

(『세종실록』 권132의 회례 현가의 악현에는 축, 어가 빠졌지만 설명에는 ‘軒架之北設祝敵於北架內祝在東敵在西’의 기록이 있으므로 축, 어의 악기가 현가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 〈시용 전정현가〉와 같은 악기편성이 어느 시기까지 그대로 쓰여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인조 때 간행된 『증보문헌비고』에 의해서 인조 무렵 전정현가는 그 규모가 성종 때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인조-정조

『증보문헌비고』 권105에 기록된 전정현가의 편성은¹⁴⁾ 성종 때보다 그 규모가 작아지는 한편 악기 사용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악학궤범』의 관악기와 현악기를 혼용한

14) 『증보문헌비고』 악고 권105, 9a.

관현합주의 악기편성 형태에서 현금, 가야금, 월금, 대쟁, 아쟁, 향비파¹⁵⁾와 같은 현악기의 요소가 모두 빠지면서 관악편성의 형태로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악기의 수효에 있어서 편종과 편경이 각각 3에서 2로, 장고가 8에서 2로, 당비파는 6에서 2로, 당적은 4에서 2로, 통소는 5에서 2로 감소되어 성종조보다 작은 규모로 바뀌게 된다.

〈사료 2〉 朝儀陳賀 殿庭軒架 執事樂師一人 執拍假典樂一人 樂工 四十名 建鼓 應鼓 朔鼓 方響 祝 敵 照燭 各一 編鍾 編磬 杖鼓 琵琶 奚琴 唐笛 洞簫 各二 鬲篥五 大箏六 笙四 (『증보문헌비고』 권105)

『국조오례의』 서례에서 생황은 전정헌가에笙, 竿, 和로 구별되어 사용되었으나 『악제법』의 전정헌가에는 생, 우, 화 모두 사용되지 않다가 인조조에 와서 생황은笙 한 가지로 다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인조 이후 숙종, 영조조에서는 또다시 쓰이지 않다가 정조 무렵부터 또다시 사용되는 불규칙한 용법을 보인다.¹⁶⁾

인조 무렵 현금, 가야금, 월금, 향비파, 대쟁, 아쟁 등의 현악기가 쓰이지 않는 변화된 형태의 전정헌가는 큰 변화 없이 숙종에서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된다. 이것은 곧 인조조 전정헌가가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후기에 이르러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의 관악편성 형태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뜻한다.

인조에서 고종에 이르는 기간 전정헌가의 악현과 용례는 『춘관통고』, 『국조속오례의』의 예서와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존 연향관련 의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숙종조의 『(기해)진연의궤』와 그 후 간행된 영조조의 『(갑자)진연의궤』는 18세기 궁중 연향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그러나 이 두 의궤에는 반차도가 없기 때문에¹⁷⁾ 정전에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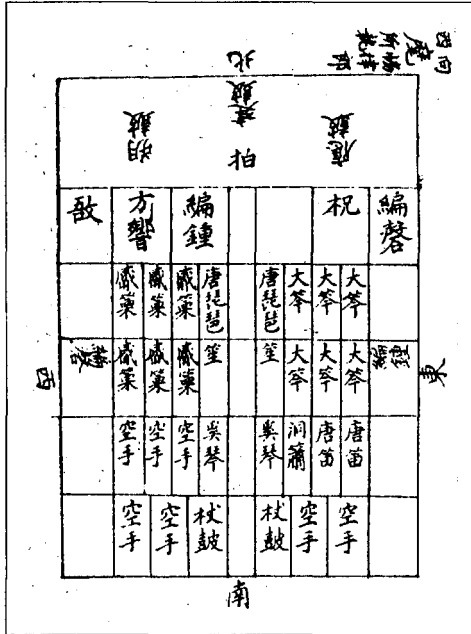
15) 향비파는 적어도 인조에 이르러 예연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이후로 비파는 당비파 한 종류만이 사용된다.

16) 생황의 이러한 불규칙한 용법은 『악장등록』을 통해서 당시 중국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수급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방송, 『악장등록연구』 중 영인본 35b 참조.

17) 의궤에 수록된 도식은 排班圖와 班次圖가 나란히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반도는 반차도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악공, 무동, 정재여령 각 차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반차도상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의 실체를 좀더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설되는 전정현가의 위치나 악기의 배열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반차도의 도식이 수록되어 있는 여타의 의궤에서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인조, 숙종, 영조대의 전정현가 악기편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춘관통고』, 『(기축)진찬의궤』를 통해서 당시 전정현가의 악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도 4〉 『춘관통고』 〈今儀 殿庭軒架 圖說〉



정조 때 간행된 『춘관통고』 권50의 〈今儀 殿庭軒架圖說〉에 보이는 악기편성은 인조, 숙종, 영조대의 그것과 유사하다.¹⁸⁾ 다만 악기의 사용에서 숙종, 영조대에 쓰이지 않던 篳이 새로 추가되고 피리, 대금, 해금 등의 악기 수요가 각각 10개, 10개, 4개로 늘어나고 성종 이후 쓰이지 않던 교방고가 다시 쓰이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18) 정조 때에 간행된 의궤로는 19년의 『원행음료정리의궤』가 있는데,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거행된 진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주악을 담당한 전정현가는 당시 궁중의 연례에 진설되는 『춘관통고』 가례에 보이는 〈금의 전정현가〉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 점에서 궁중연회에 일반적으로 진설되는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순조-고종

순조조에 간행된 의례로 현재 규장각에는 『자경전진작정례의궤』, 『(무자)진작의궤』, 『(기축)진찬의궤』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3종의 의례는 순조 27년, 28년, 29년의 동시대에 간행된 것이면서도 전정헌가와 등가의 악현과 용례가 서로 다르다.

『(무자)진작의궤』는 자경전에서 거행된 진작례에 전정헌가가 진설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기축)진찬의궤』는 전정헌가와 외진찬에만 진설되고 내진찬에는 진설되지 않은 특수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순조 27년 순원왕후의 존호기념으로 설행된 진작례를 기록한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는 당시 연회에 진설된 전정헌가와 등가의 악현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외보계헌가도와 회보계등가도가 있는데, 이 두 그림은 국내에 소장된 다른 의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외보계헌가도의 도식을 문자로 작성한 배반도를 옮긴 것이다. <표 3>과 같이 4줄로 배열되는 예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자경전진작도에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형태로 배열되어 두 기록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자경전진작정례의궤』 外補階軒架圖

생비방편편어응		삭축편편비생
파향경종 고		고 종경과
필필필해해장		장해해대대대
틀틀틀금금고		고금금금금금
필필필필필필	건	대대대대대대
틀틀틀틀틀틀	고	금금금금금금
당당필		대당당릉릉
적적틀		금적적소소

순조 29년에 간행된 『(기축)진찬의궤』는 순조의 四旬과 등극 30년을 慶賀하기 위하여 설행된 진찬을 기록한 것인데, 전정헌가는 明政殿의 外進饌에만 진설되고 慈慶

殿에서 거행된 內進饌에는 진설되지 않는다. 『(기축)진찬의궤』에서와 같이 內進饌에 전정헌가가 진설되지 않고 등가만 진설된 예는 이후의 여타 의궤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곧 內進宴, 內進饌과 같은 內宴에 전정헌가가 진설되는 것이 관례였음을 뜻한다.¹⁹⁾ 明政殿에서 거행된 外進饌에 진설된 전정헌가 악현은 다음과 같다.

〈표 4〉 『(己丑)진찬의궤』 明政殿 진찬(헌가)

삭고	웅고
생생어편방	축방편생생
중향	향경
가가가필필필필	대대대당당통통
를를를를	금금금적적소소
조장장해필필필비	비대대대해장장
추고고금를를를과	과금금금금고고

〈표 4〉와 같이 3줄로 늘어선 전정헌가의 배열 방식은 〈도 4〉의 『춘관통고』 〈今儀殿庭軒架〉와 다를 뿐만 아니라 〈표 3〉의 『자경전진작정례의궤』의 4줄 배열 또는 〈표 5〉의 『(무신)진찬의궤』의 2줄 배열과 다른 형태이다. 전정헌가의 배열 형태는 후대로 오면서 4줄-3줄-2줄의 배열로 점차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데, 『(기축)진찬의궤』와 같이 3줄로 배열되는 예는 다른 의궤에서는 보이지 않는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현종대의 전정헌가 역시 순조조의 전정헌가의 악기편성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다만 배열에 있어서 순조 때와는 달리 좌우 3줄이 아닌 2줄로 편성되는 점과 대각, 자바라, 호적, 나발, 징 등으로 구성된 內吹가 內宴에 등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내취에 대한 논의는 IV장 참조).

현종 『(무신)진찬의궤』에 보이는 〈표 5〉의 두 줄로 좌우 양립되는 악기배열 형태는 현종 이후의 진연, 진작, 진찬의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줄로 배열되는

19) 내연에 전정헌가가 진설된 대표적인 예는 『(무신)진찬의궤』를 비롯하여 『(무진)진찬의궤』, 『진연의궤』(광무 6년) 등에서 볼 수 있다.

형태가 일반화되는 시기는 현종대로 볼 수 있다.

<표 5> 『(戊申)진찬의궤』 通明殿 진찬(헌가)

필필필장편편방삭어		건		축응편편장대대대대대
틀틀틀고경중향고	대자호	고	호나징螺	고경중고금금금금금
	각바적		적발	
생생비필필필필필	라			대대대비당당통통해해
과를틀틀틀틀				금금금과적적소소금금

<표 5>와 같은 현종조의 전정헌가는 그 악기편성과 배열 방식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1902년까지 답습되는데, 이것은 곧 『(무신)진찬의궤』에 보이는 전정헌가가 조선 후기 전정헌가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정헌가는 조선 초기 아악기 위주의 관현편성이 이후 향당교주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다시 성종 이후 현악기가 폐용되면서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구성되는 관악편성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같은 악기편성이 조선 말까지 그대로 사용된다. 성종 이후 전정헌가가 관악편성의 형태로 정립되는 것은 등가가 관현편성의 일관된 형태로 유지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 궁중 예연에 진설된 전정헌가의 악기편성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조선시대 전정현가 악기편성

시행·편찬연도	문헌명	건고	삭고	응고	추	어	생	편중	편경	방향	당적	비파	월금	통소	피리	대금	해금	장고	교방고	현금	가야금	아쟁	가 가 가	박	비 고	
세종	세종실록 가례서례	3	3	3	1	1	생7 우10 화3	9	9														10		금5, 술5, 관10, 약10, 봉소10, 저10, 훈10, 부10	
세종	세종실록						생1 화1			2	4	당8 향2		2	향 당	4	2	12	1	2	2		대2 아2			용관2
성종 5	국조오례의	1	1	1	1	1	생1 우2 화1	3	3	2	2	향1 당4	1	2	5	대4 중2 소2	2	4	1	1	1			6		훈2, 저2, 관2
성종 24 (1493)	악학궤범	1	1	1	1	1		3	3	2	4	향2 당6	2	5	5	6	2	8		2	2		아1 대1	1		
인조 21 (1643)	증보문헌고	1	1	1	1	1	4	3	3	2																
숙종 45 (1719)	진연의궤	1	1	1	1	1		2	2	2	2	2		2	7	6	2	4							3	1
영조 20 (1744)	진연의궤	1	1	1	1	1		2	2	2	3	2		1	7	6	2	4								
영조 41 (1765)	수작의궤	1	1	1				1	1																	악2, 소1, 저5, 부2, 훈2, 적2
정조 12 (1788)	춘관통고	1	1	1	1	1	2	2	2	1	4	2		2	10	10	4	2	1						1	
순조 27 (1827)	자경전진작정례의궤	1	1	1	1	1	2	2	2	1	4	2		2	10	10	4	2							1	
순조 29 (1829)	기축진찬의궤	1	1	1	1	1	2	2	2	2	2	2		2	7	6	2	4							3	1
헌종 14 (1848)	무신진찬의궤	1	1	1	1	1	1	2	2	1	2	2		2	6	5	2	2							1	
고종 5 (1868)	무진진찬의궤	1	1	1	1	1		2	2	1	2	2		2	8	8	2	2							2	
고종 10 (1873)	계유진작의궤	1	1	1	1	1	1	2	2	1	2	2		2	8	7	2	2							2	2
고종 14 (1877)	정축진찬의궤	1	1	1	1	1	1	2	2	1	2	2		2	8	7	2	2							2	2
고종 24 (1887)	정해진찬의궤	1	1	1	1	1	1	2	2	1	2	2		2	8	7	2	2							2	
고종 29 (1892)	임진진찬의궤			1	1	1	1	2	2	1	4	2			6	4	4									
광무 5 (1901)	신축진연의궤	1	1	1	1	1	1	2	2	1	2	2		2	8	7	2	2							2	
광무 6 (1902)	임인진연의궤	1	1	1	1	1	1	2	2	2	2	2		2	6	6	2	2							2	

III. 登歌의 악현과 용례

조선시대 연례악을 담당하는 악대로서 전정의 殿階 위에 진설되어 주악을 담당하는 악대를 登歌 또는 殿上樂이라고 한다.

등가의 악현에 대한 기록은 전정헌가에 비해 소략한 편이다. 조선 전기 등가의 악현은 『세종실록』과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있고, 후기는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궤』 등의 연향 관련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정헌가의 악현이 기록되어 있는 『국조오례의』, 『춘관통고』,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등가의 악현이 전하지 않는다.

예연에서 등가가 진설되는 용례는 전정헌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등가가 예연에서 주악을 맡는 예가 전정헌가에 비해 적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등가의 진설은 궁중 예연의 성격과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세종실록』 권132 가례서례에 의하면 會禮宴圖, 正至會百官之圖 등에 진설되었고 『악학궤범』에 의하면 內殿의 進豊모 및 曲宴, 觀榭, 行幸 등에 진설되었으며²⁰⁾ 조선 후기에는 진연, 진찬, 진작 등의 연회에 진설되었다. 그러나 세종조의 正至及誕日勤政殿朝賀之圖, 『국조오례의』 序禮의 勤政殿正至誕日朝賀之圖, 正至及聖節望闕行禮誕日之圖 등에는 진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 와서 등가는 御宴 또는 진연, 진찬, 진작과 같은 특별한 연회에서 전정헌가와 함께 진설될 뿐만 아니라 전정헌가가 진설되지 않는 익일회작, 익일야연에도 진설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선 후기 등가의 주악 활동은 전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시대 예연에 진설된 등가의 악기편성은 세종, 성종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나 성종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순조, 헌종대에는 진설 방식이나 그 쓰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0) 『악학궤범』 권2 〈正殿禮宴樂工排立〉 참조.

된 악대의 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대쟁, 아쟁은 『세종실록』 가례서례의 악현에는 전정현가, 등가에 모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회례와 조회에 진설된 악대의 악기편성에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세종 6년에 이르러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대쟁, 아쟁이 새로이 추가되어 사용되었거나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세종 6년 12월 을사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조회와 연향에 진설된 악대는 서로 동일한 형태로 되었는지가 분명해져야만 그에 대한 해석도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종실록』 16년의 기사에도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등가에 해당하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당시 회례연에서 주악을 담당한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에 대한 변화는 알 수 있더라도 등가에 해당하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관계로 악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종 16년 무렵 전정현가가 향악기, 당악기의 향당교주 형태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세종실록』 가례서례의 악현과 같이 등가가 회례에 전정현가와 함께 진설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앞서 전정현가 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종 16년 무렵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이 당악기와 향악기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면, 그때 등가의 악기편성에도 아울러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왜냐하면 세종 16년에 전정현가가 이미 향악기, 당악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면 등가의 악기편성(전정현가와 함께 회례에 진설되었거나, 진설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에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이전과 같은 아악기 중심의 편성으로 그대로 존속되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례에 진설되는 등가, 현가 악대의 악기편성과는 다른 형태의 전정현가와 등가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그 악기편성은 향악기, 당악기 중심의 향당교주 형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성종-정조

『국조오례의』에는 전정현가가 圖設로써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등가는 그 악기편성, 악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록면에서 등가에 대한 기록이 전정현가에 비해 소략한 것은 당시 예연에서의 주악은 등가보다 전정현가를

않고 후부고취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세종, 성종 무렵 의례적으로 거행되는 예연에서의 주악은 전정헌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에는 예연에서 주악을 담당하는 등가의 기록이 권2의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에 보인다. 실제로 『악학궤범』에는 등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가로 보는 이유는 악대가 中階 위에 진설되고 그 악기의 편성이 숙종 『(기해)진연의궤』에 보이는 殿上樂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그것이 예연에서 진설되던 등가에 해당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에 의하면 성종조 등가의 악기편성은 당적2, 향비파2, 당비파4, 율금2, 통소2, 피리4, 대금6, 해금2, 장고8, 교방고1, 현금2, 가야금2, 아쟁1, 대쟁1, 대고1로 구성된다. 이러한 악기편성은 이후 커다란 변화없이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일부 악기의 사용에서 가감이 있는 정도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숙종조 『(기해)진연의궤』와 영조조의 『(갑자)진연의궤』에 기록된 등가의 악기편성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종조와 같다. 다만 성종조에 비파는 향비파, 당비파 두 가지로 사용되었고 아쟁과 대쟁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숙종, 영조조에는 비파는 당비파 한 종류만 쓰이는 한편 대쟁이 쓰이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정조 때에 간행된 의궤는 숙종, 영조 때의 의궤보다 음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항목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거행한 進饌禮가 기록되어 있는 『원행음묘정리의궤』에는 당시 진찬을 행할 때 주악을 담당할 악대의 악기편성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차도가 있고 각각의 의식 절차에 따른 주악 관계와 악기편성을 기록한 儀註와 악공, 정재 여령의 소임을 맡은 인물의 수와 명단이 기록된 工伶²⁴⁾ 부분이 이전의 의궤에서보다 구체적이다.

24) 儀註는 각각의 의식절차와 그에 따른 전정헌가와 등가의 주악 관계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고 工伶은 樂工과 舞童 및 畵才女伶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다. 의주에는 각각의 절차에서 어떠한 악곡이 연주되었으며 또 그 악곡은 전정헌가와 등가의 두 악대 중 어느 악대에 의해서 주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연례악의 종류, 연주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 상연된 정재의 종류까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공령은 당시 예연에서 주악을 맡은 전정헌가와 등가를 구성하는 악공의 인원수와 명단 그리고 각각의 정재를 상연할 때 동원된 무동과 여령의 인원수와 소임을 맡은 인물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되어 있다. 의주와 공령의 이렇듯 소상한 기록은 禮書뿐만 아니라 『악학궤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요한 항목이라는 점은 그 사료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3. 순 조

규장각에 소장된 순조조에 간행된 『자경전진작정례의궤』, 『(무자)진작의궤』, 『(기축)진찬의궤』 3종의 의궤는 당시 연향에 진설된 등가의 악기편성과 악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순조 27년의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 기록된 등가의 악기편성은 전시대의 악기편성에 편종, 편경, 생의 악기를 추가한 형태인데, 편종과 편경은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고종 14년에 잠시 한차례 사용되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등가에서 불규칙하게 사용되는 편종과 편경은 전정헌가에서 항상 사용된 것과 구별된다.

〈표 7〉 『慈慶殿進爵正禮儀軌』 外補階(등가)

비생현가아해어	축해아가현생비
파 금야쟁금	금쟁야금 파
금	금
방편대대장해	해고장필필편
향경금금고금	금방고물물종
	고
대대대대대	필필필필필필
금금금금금	물물물물물물
통당당대대	필필당당통
소적적금금	물물적적소

〈표 7〉은 외보계 등가의 배반도를 옮긴 것인데 현가의 경우와 같이 반차도의 그림에 배열된 것과 차이가 있다. 연회 당시 〈표 7〉과 같이 정방향으로 배열되었는지 반차도와 같은 형태로 배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경전진작정례의궤』 반차도에 보이는 등가의 악현은 2년뒤 같은 장소에서 거행된 진찬 때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진찬, 진작의 연회 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조 28년의 『(무자)진연의궤』와 순조 29년의 『(기축)진찬의궤』에는 이전에 사용된 바 없는 唐琴, 浮漚, 鐵笛, 雲羅, 鉦, 饒 등의 악기가 새로 추가된다. 『(戊子)진작의

『(무자)진작의례』는 순조 28년 純祖妃 純元王后의 四旬을 맞아 거행된 2차례 進爵儀式을 수록하여 合編한 책이다. 순조 28년의 진작의식은 순원왕후 탄신일에 앞서 2월 12일 慈慶殿에서 한 차례 거행된 다음, 탄신일인 6월 1일 演慶堂에서 또 한 차례 거행되는데 이때의 진작의식은 모두 內宴으로 거행된다. 이 두 차례의 내연은 두 측면에서 특징을 나타낸다. 즉 전정현가가 진설되지 않고 등가만 진설되는 점 그리고 상연된 朶才의 종류도 다른 연회에서보다 적은 점에서 여타의 의례와 차이를 보인다.

〈표 8〉 『(무자)진작의례』 慈慶殿(등가)

<좌> 향운筋철요해해필필필장교생생당당대대통비비양당현가아방 방라 적 금금물물물물고방 적적금금소파과과금금금야쟁향 고 금
<우> 향아가현당양비비통부대대당당생생교장필필필해해요철筋운방 방쟁야금적금과과소구금금적적 방고물물물물금금 적 라향 금 고

다음의 〈표 9〉는 순원왕후의 탄신일에 거행된 〈演慶堂進爵班次圖〉에 보이는 악현을 옮긴 것인데 연경당 진작에 진설된 등가는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경전에 진설된 등가의 규모보다 훨씬 작다.

〈표 9〉 『(무자)진작의례』 演慶堂 進爵(등가)

가 비 당 현 아 방 교 갈 장 필 필 필 필 대 대 해 야 파 금 금 쟁 향 방 고 고 룰 룰 룰 룰 금 금 금 금 고

순조 29년 『(기축) 진찬의례』의 등가 악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표 10〉과 같이 좌우 3줄로 명정전에 진설된 등가는 〈표 11〉과 같이 2줄의 긴 형태로 자경전에 진설된 등가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다. 『(기축)진찬의례』에서와 같이 外宴에서보다 內宴에 진설된 악대의 규모가 더 큰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10> 『(기축)진찬의궤』 明正殿 進饌(등가)

방	아	아	비	歌	歌	歌	歌	비	현	현	가	가	
향	쟁	쟁	과					과	금	금	야	야	
											금	금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대	대	대	대	해	해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금	금	금	금	금	금
	통	당		장	장			장	장	당	대		
	소	적		고	고			고	고	적	금		

다음의 <표 11>은 『(기축)진찬의궤』에 보이는 慈慶殿 進饌, 慈慶殿 夜進饌, 慈慶殿 翌日會酌에 전정현가없이 단독으로 진설된 등가의 악현이다. 자경전 익일회작의 경우 등가가 좌우로 양립하지 않고 좌측에 치우쳐서 배열된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배열되는 예는 다른 의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표 11> 『(기축)진찬의궤』 慈慶殿 進饌(등가)

<좌>	방운筋鐵鑊해해필필필장교생생당당대대통비비양당현가아방 향라 笛 金金를를를고방 적적金金소과과金金금야쟁향 고 金
	방아가현당양비비통부대대당당생생교장필필필해해鑊筋운방 향쟁야金金金과과파소구金金적적 방고를를를金金 笛 라향 金 高
<우>	鉦鑊浮해해아비비당양가현방 방가양당비비아해해생생운 嘔金金쟁과과金金야금향 향야金金과과쟁金金 라 金 金
	방筋통생생당당대대대장교 교장필필필필필필철당당통방 향 소 적적金金금고방 방고를를를를를를적적적적소향 고 고

한편 순조 28년 등가에 새로 추가된 唐琴, 浮漚, 鐵笛, 雲羅, 鉦, 鑊는 이듬해인 기축년의 진찬 때에도 사용되지만 이후 당금과 운라는 더 이상 등가에서 쓰이지 않게 되고, 浮漚, 鐵笛, 鉦, 鑊는 순조 29년 內進宴인 자경전 진찬에 內吹악대에 편성되고

부구와 철적은 각각 자바라, 호적으로 그 명칭이 점차 바뀌게 된다.

內吹는 순조 28년까지만 하여도 연회에 등장하지 않았던 정황으로 볼 때, 『(무자)진찬의궤』에 보이는 등가에 편성된 부구, 철적, 징, 요는 순조 28년 이후에 와서 내취로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현종-대한제국

(1) 현종-고종

『(戊申)진찬의궤』는 현종 14년(1848)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六旬과 왕대비의 望五二慶 맞이하여 거행한 進饌禮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등가는 通明殿進饌, 通明殿夜進饌, 通明殿翌日會酌, 通明殿翌日夜燕에 모두 동일한 악현으로 진설된다. 이때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는 순조 때와 거의 같고 다만 이전에 사용된 바 없는 갈고와 양금이 추가되고 歌가 빠진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²⁵⁾ 현종 때의 등가 악현에서 편종과 갈고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의 쓰임은 고종 때까지 그 종류와 수효에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한편 『(무신)진찬의궤』의 樂器圖에는 현종이전, 이후에 보이지 않는 絃子라는 악기가 수록되어 있다. 현자는 『(무신)진찬의궤』의 반차도나 공령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현종 당시 연향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표 12〉 『(戊申)진찬의궤』 通明殿 進饌(등가)

해해장양통당비아가현방	방현가아비당통생箏해해
금금고금소적파쟁야금향	향금야쟁파적소 금금
금	금
대대대대대필필필필필장교	교장필필필필필대대대대대
금금금금금률률률률률고방	방고률률률률률금금금금금
고	고

고종조에는 모두 5종의 의궤가 전하는데 진찬, 진작 각각의 연회에 진설된 등가의

25) 歌는 악현에서 빠진다는 것이진 찬례에서 唱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기편성과 악현은 모두 현종 때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다.

(2) 대한제국

광무 5년의 『(신축)진찬의궤』와 광무 6년의 『(임인)진연의궤』에 보이는 등가의 악기편성은 현종 때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조선 전기에 잠시 등가에서 사용되다가 폐용된 특종, 특경, 월금, 갈고, 대쟁이 다시 추가되고 현종 이후로 불규칙한 사용을 보인 갈고도 사용되어 현종에서 고종조에 이르는 등가의 악기편성에 비하여 그 종류가 늘어난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추가된 특종, 특경, 월금, 갈고, 대쟁은 <표 12>의 『(무신)진찬의궤』의 등가 악현 좌우의 가장자리에 배열된다.

조선시대 궁중 예연에 진설된 등가의 악기편성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조선시대 등가 악기편성

시행·편찬연도	문헌명	생	특 종	특 검	축	어	방 향	당 적	비 파	월 금	통 소	피 리	대 금	해 금	장 고	갈 고	교 방 고	현 금	가 야 금	아 쟁	양 금	가 箏	가 笛	가 歌	박	비 고
세종	세종실록	2	1 편1	1 편1	1	1																		22	금6, 슬6, 지2, 판2, 약2, 훈2, 우2, 화2, 소2, 봉소2	
성종 24 (1493)	악학궤범							2	향2 당4	2	2	4	6	2	8		1	2	2	아1 대1						대고 1
숙종 45 (1719)	기해진연의궤						1	1	2		1	8	5	2	4		1	2	2	2				4		
영조 20 (1744)	갑자진연의궤						1	2	2		1	8	5	2	4		1	2	2	2				4		
영조 41 (1765)	수작의궤	생1	편1	편1	1	1																		2	소1, 금2, 슬2, 지2, 적2, 약2, 훈1, 절고1	
순조 27 (1827)	자경전진작정궤의궤	2	편1	편1	1	1	1	4	2		2	10	10	4	2		1	2	2	2					1	
순조 28 (1828)	무자진작의궤	4					4	4	4		2	6	4	4	2		2	2	2	2	2	2			3	당금2, 부구1, 정1, 운라2, 철적2, 요1
순조 29 (1829)	기축진찬의궤 (명정전)	2					1	2	1		1	7	6	2	4		1	2	2	2			4	4	1	
	(자경전)	4					4	4	4		2		4	4	2		2	2	2	2	2	2				당금2, 부구1, 정1, 운라2, 철적2, 요1
헌종 14 (1848)	무신진찬의궤	1					2	2	2		2	10	10	4	2	1	2	2	2	2	1	1			1	
고종 5 (1868)	무진진찬의궤	1					2	2	2		2	10	10	4	2		2	2	2	2	1	1			1	
고종 10 (1873)	계우진작의궤	1					2	2	2		2	10	10	4	2	1	2	2	2	2	1	1			1	
고종 14 (1877)	정축진찬의궤		편1				2	2	2		2	10	10	4	3		1	2	2	2	1	1			1	
고종 24 (1887)	정해진찬의궤	1					2	2	2		2	10	10	4	3		2	2	2	2	1	1			2	
고종 29 (1892)	임진진찬의궤	1					2	2	2		2	10	10	4	3		2	2	2	1	1	1			2	
광무 5 (1901)	신축진연의궤	1	1	1			2	2	1	1	2	10	10	4	2	1	1	2	2	아1 대1	1			4	1	
광무 6 (1902)	임인진연의궤	1	1	1			2	2	2		2	10	10	4	2	1	2	2	2	아2 대1				4	1	

IV. 內吹의 편성과 용도

內吹는 숙종, 영조 때까지도 진연, 진찬, 진작 등의 연회에서 전정헌가, 등가와 함께 진설되지 않다가 순조 29년 『(기축)진연의궤』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내취가 순조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국조속오례의』〈仁政殿進宴之圖〉²⁶⁾, 『춘관통고』〈續儀仁政殿進宴之圖〉²⁷⁾에 의하면 내취는 전정헌가와 함께 전정에 진설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진설된 내취는 순조 이후의 진연, 진찬, 진작 등에서 船遊樂이 상연될 때 대령하는 것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순조 29년 이후 선유락이 상연되는 연향에는 항상 내취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이 정재의 반주를 맡게 되는 내취는 행차 때 사용된 내취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²⁸⁾ 『(기축)진연의궤』의 工伶에 기록된 내진연의 각 차비를 나타낸 〈慈慶殿進饌時樂工內吹呈才女伶各差備〉에는 징1, 고2, 호적6, 자바라4, 나발4으로 편성되는 내취가 登歌樂工差備 다음에 열거되어 있으며 ‘以上內吹船遊樂呈才待令’의 각주가 붙어 있다. 연향 관련 의궤 중 내취가 처음 등장한 순조 『(기축)진연의궤』에는 外進宴에 편성되지 않고 內進宴에서 船遊樂이 연행될 때에 항상 대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外宴에 내취가 따르지 않는 것은 舞童이 정재를 추는 外宴에서는 선유락이 올려지지 않고 內宴과 같이 女妓가 정재를 연행할 경우에만 올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선유락은 여기가 정재를 담당하는 내연에서만 올려지는데 순조 이후 선유락은 내진연에 항상 올려진다. 예컨대 헌종 때에는 내취가 대왕대비전에서 4차례 실행되는 通明殿進饌, 通明殿夜進饌, 通明殿翌日會酌, 通明殿翌日夜讌의 內進饌에 모두 동일한 편성으로 수반되며 이때 4차례의 잔치에는 모두 선유락이 올려진다. 따라서 순조 29년에 처음 내진연에 내취가 수반된 이후, 선유락이 올려지는 모든 내진연에는 내취가 항상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인)진연의궤』의 경우 外宴인 〈中和殿進宴班次圖〉에는 오른쪽 한편에만 호적, 자바라, 고, 나발, 螺, 징으로 편성된 악대가 보이는데, 이것을 內宴에서 선유락이 연

26) 『국조속오례의』 서례 가례 진연도 참조.

27) 『춘관통고』 권63, 연례 참조.

28)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400쪽 참조.

행될 때 대령되는 내취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中和殿進宴은 外宴 이므로 舞童이 정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女伶에 의해서 연행되는 선유락이 중화전 진 연에는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권3 공령편 <中和殿進宴時殿庭軒架樂工及殿上樂工呈才舞童各差備>에 내취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진연, 진작, 진찬의궤에 보이는 내취의 악기편성 및 악현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순조 『(기축)진찬의궤』에는 좌우로 나뉘어 배열되지 않고 아래 <표 12>와 같은 형태로 등가의 악대 앞에 편성된다.

<표 14> 『(기축)진찬의궤』 내취

호	호	호	호	호	호	호	鼓	鼓
적	적	적	적	적	적	적		
나	나	나	나	자	자	자	자	징
발	발	발	발	바	바	바	바	
				라	라	라	라	

그후 현종 『(戊申)진찬의궤』에는 <표 15>, 『(임인)진연의궤』에는 <표 16>과 같은 형태로 편성된다.

<표 15> 『(무신)진찬의궤』 내취

대	자	호	호	나	징	螺
각	바	적	적	발		
라						

<표 16> 『(임인)진연의궤』 내취

鑼	螺	나	고	자	호	호	자	고	나	螺	징
발		바	적	적	바	발					
		라			라						

내취의 악기편성은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좌우 양편으로 대립해서 편성되고 그 좌우에 편성되는 악기는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내취의 편성을 공령과 반차도를 구분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취의 구성에 대한 공령과 반차도의 기록은 차이를 보인다.

<표 17> 내취의 악기편성 및 악현

연 대	문헌명	工 伶	班 次 圖												
			左						右						
			징	호적	나각	자바라	나발	대각	고	징	호적	나각	자바라	나발	고
순조 29(1829)	己丑 진찬의례	징1 호적6 자바라4 나발4 고2		1		1		1		1	1	1		1	
헌종 14(1848)	戊申 진찬의례	징1 호적2 나각2 자바라2		1		1		1		1	1	1		1	
고종 5(1868)	戊辰 진찬의례	징1 호적2 나각2 자바라2	1	1	1	1	1			1	1	1	1	1	
고종 10(1873)	癸酉 진작의례	징1 호적4 나각2 자바라													
고종 24(1887)	丁亥 진찬의례	징1 호적4 나각2 자바라2		1		1		1		1	1	1		1	
광무 6(1902)	壬寅 진연의례	징1 호적2 나발2 자바라2 고2	羅1	1	1	1	1		1	1	1	1	1	1	1

V. 맺 음 말

조선시대 궁중 예연에서 주악을 담당하던 殿庭軒架와 登歌의 형태를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춘관통고』와 규장각 소장인 『진연의궤』, 『진찬의궤』, 『진작의궤』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세종실록』 「오례·가례서례」에 기록된 회례에 진설된 軒架와 登歌는 아악기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세종실록』 16년의 기록에는 이러한 아악기 중심의 현가, 등가와 다른 형태인 당악기, 향악기 중심의 전정현가가 보인다. 세종조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악기편성의 기록은 악기편성의 변화를 가리키는 지 혹은 예연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다른 형태로 된 악대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성종 때의 『악학궤범』에 殿庭軒架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의 관련 편성으로; 登歌는 당악기와 향악기의 관련 편성으로 구성된다. 성종 이후 인조대에 와서 전정현가는 현금,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가 빠지게 되면서 당악기와 향악기의 관악편성 형태로 변한다. 그러나 등가는 성종조와 같은 관악기 중심의 형태가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조선 후기의 궁중 연향을 기록해 놓은 『進宴儀軌』, 『進饌儀軌』, 『進爵儀軌』에는 그 의식의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연회에 편성되는 전정현가와 등가의 규모는 대동소이하다. 이들 의궤에 기록된 전정현가의 악기편성은 인조조와 유사하지만 악기의 종류와 수효가 훨씬 많아진다. 등가는 숙종, 영조조와 같은 형태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

으며 조선 초기의 관현편성 형태가 지속적으로 답습되어 관악 형태의 전정헌가와 확연히 구별되는 악기편성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 연향관련 의례에 의하면 전정헌가는 益日會酌, 益日夜讌에는 진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등가가 內宴, 外宴의 연회 당일뿐만 아니라 익일회작, 익일야연 등 모든 연회에 진설되는 용례와 차이를 보인다.

등가는 궁중 예연에 진설되는 용례에서 전정헌가와 차이를 보이는 한편 악기편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등가, 전정헌가 모두 그 편성이 시대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전정헌가와 등가의 악기편성의 차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등가의 악기편성이 전정헌가와 구별되는 가장 일반적인 차이는 등가에는 전정헌가에 쓰이는 건고, 삭고, 응고, 축, 어 등의 아악기가 사용되지 않는 반면, 현금과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가 사용되어 당악기, 향악기 중심의 관현악대의 성격을 갖는 점에 있다.

전정헌가와 등가의 배열 형태는 일반적으로 4줄에서 3줄로 다시 3줄에서 2줄로 바뀌면서 길게 늘어선 형태로 자리잡게 되는데 연회가 거행되는 장소와 연회의 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內吹는 숙종, 영조 때까지도 진연, 진찬, 진작 등의 연회에서 전정헌가, 등가와 함께 수반되지 않다가 순조 29년에 와서 內宴에 등장하는데, 내취는 外宴에는 편성되지 않고 內宴에만 편성된다. 내취는 女妓가 內宴에서 船遊樂을 출 때 대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유락은 舞童이 추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의해서 상연된다. 따라서 선유락은 내연에서만 울려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취는 내연에만 편성되게 된다.

참고문헌

〈원 전〉

『국조오례의』

『춘관통고』

(壬寅)진연의례 규 14500

(丁丑)진찬의례 규 14400

(戊申)진찬의궤 규 25027
 (戊辰)진찬의궤 규 14374
 (壬寅)진연의궤 규 14479
 (癸酉)진작의궤 규 14375
 (丁亥)진찬의궤 규 14404
 (壬辰)진찬의궤 규 14428
 (戊子)진작의궤 규 14364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3
 (己丑)진찬의궤 규 14367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3
 (戊申)진찬의궤 규 14372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6
 자경전진작정례의궤 규 14536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13
 (己亥)진찬의궤 규 14358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13
 (申丑)진찬의궤 규 14446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3
 (辛丑)진연의궤 규 14464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4
 (甲子)진연의궤 규 14360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30
 수작의궤 규 14361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30
 원행을묘정리의궤 규 14532
 혜경궁진찬의궤 장서각 2-2822

〈논 저〉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서울: 일조각, 1991).

이혜구, 『국역 악학궤범』 (서울: 민문고, 1967).

_____, 「經國大典 樂工 取才項目 中の 唐樂과 鄉樂」, 『한국음악연구』 제21집(한국국악학회, 1993).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서울: 일조각, 1984).

장사훈, 『세종조 음악연구』 (서울대출판부, 1982).

_____, 『증보 한국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